

보도시점 2026.6.18.(목) 15:00
6.19.(금) 조간 배포 2026. 6. 18.(목)

한-체코, 원전 협력으로 쌓은 신뢰를 첨단산업 협력으로 확장한다

-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 이행현황 점검 및 양국 기업 협력 확대
- 첨단로봇·배터리·미래차 협력센터 구축 및 공동 R&D 추진
- 한-체코 원전기업 파트너십 행사 및 로봇 테스트베트 방문 통해 협력 모멘텀 강화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6.17(수)부터 6.18(목)까지 체코를 방문하여 카렐 하블리ček(Karel Havlí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첨단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 2차 회의 >

양국 산업부 장관은 지난 2월 발족한 「두코바니 프로젝트 이행점검 협의체(Dukovany Steering Committee)」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의 이행 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였다. 양측은 팀코리아가 인허가서류 제출 등 정해진 일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허가 서류 작성을 위한 인력확보, 중량물 운송계획 등 주요 사업 리스크도 점검하였으며, 두코바니 사업에서 체코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양국 정부는 앞으로도 사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제3차 장관급 한-체코 공급망·에너지 대화 >

양국 장관은 이어 개최된 「제3차 공급망·에너지 대화(Supply Chain and Energy Dialogue)」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원전 협력을 통해 구축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이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24년 채택된 「블타바(Vltava) 첨단산업 협력 비전」*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

기로 하였다. 특히 양자·다자 공동 연구개발(R&D)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로봇·배터리·미래차 분야 협력센터 구축 현황과 공동 연구개발 추진 계획을 점검하였다.

* 배터리·로봇·미래차 등 3대 우선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며, 공동 연구, 인력 교류, 기술 실증 등 지원 협력

아울러 지난 3월 하블리체크 장관 초청으로 개최된 진출기업 라운드테이블 결과를 공유하여 우리 진출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체코 내 투자 확대 계획도 논의하였다.

< 한-체 원전기업 파트너십 행사 >

양국 기업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체 원전기업 파트너십 행사」도 개최되었다. 동 행사를 통해 김정관 장관, 하블리체크 장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은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 계약 체결 1주년을 기념하였다. 지난 1년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온 점을 서로 축하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양국 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국전력기술과 체코 EGP(프라하 에너지 프로젝트) 간 설계·인허가 기술지원 사업 계약도 체결하였다.

< 한-체코 첨단로봇 협력 현장 방문 >

김 장관은 프라하 공과대학교를 방문하여 첨단로봇 협력센터 구축 예정 부지와 로봇 테스트베드를 점검하고, 양국 기관 간 로봇산업 협력 추진 현황을 청취하였다. 김 장관은 첨단로봇 협력센터가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 실증, 인력교류를 촉진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로봇 협력센터는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로봇·배터리·미래차 협력센터 구축 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추진되고 있는 대표 협력사업으로, 양국 첨단산업 협력의 상징적인 성과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김 장관은 “최근 체코 정부가 원전 운영기간을 최대 80년까지 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은 건설과 운영을 포함해 향후 100년 이상 지속될 미래세대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는 두코바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반으로 원전은 물론 첨단산업,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로봇 협력센터를 시작으로 배터리 및 미래차 협력센터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양정식 (044-203-5660)
	구주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장재희 (044-203-5666)
	원전전략기획관	책임자	과 장	김동환 (044-203-5280)
	원전수출협력과	담당자	서기관	한대건 (044-204-5281)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동철 (044-203-4310)
	인공지능기계로봇과	담당자	사무관	안용열 (044-203-4311)

